

환경관리연구소 사무실 이전

환경관리연구소(회장 이용운)는 지난 8월말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197-22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1008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건기연,지반환경 심포지엄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대강당에서 '2002 지반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폐기물, 폐수, 유류 등으로 인해 날로 오염돼 가는 지반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기연 정하익 박사의 '폐기물 매립지의 대응 일일복토재 개발현황', 명지대 김영옥 교수의 '초음파기법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 및 슬러지처리', 서울대 이강근 교수의 '양수처리에 의한 지하수오염 정화설계기법' 등 모두 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사이트 개설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질 및 해양생태 관련 데이터 등을 수록한 해양환경정보 포털사이트(www.meps.info)를 개설해 지난 10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등 국내외 해양관련 기관들이 생산·관리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치와 그래프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간담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지자체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와 대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을 해양투기(60%)와 매립(30%)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 토양과 해수 등의 2차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의 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서도 외국 환경마크 취득 가능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최근 서울타워호텔에서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의 환경마크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

시아국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해외의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과 신청서 접수 등을 해당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면 자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 상대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개청

광주·전남지역 식수원인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9월 13일 개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오후 2층 회의실에서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시민·환경단체 대표, 환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은 기존 1국 5과 2출장소 1감시대 체제에서 2국 8과 2출장소 1감시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